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Rongsheng Holding teams up with CSSC unit for \$2.5bn splash on VLCC newbuildings

중국의 석유화학업체 Zhejiang Rongsheng Holding Group이 국영조선업체 CSSC에 VLCC(초대형유조선)을 최대 30척까지 발주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관계자에 따르면, Rongsheng Holding의 자회사 Rongsheng Petrochemical은 중동산 원유를 자국의 Zhejiang 지역의 정유공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VLCC 선대를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BP plans to double its LNG portfolio to 30 million tonnes by 2030

글로벌 에너지기업 BP가 LNG 포트폴리오를 2030년까지 30MTPA(Million Tonnes Per Annum)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2019년말 기준 BP의 LNG 포트폴리오는 15MTPA수준이라고 알려짐. 회사 관계자는 이중 Freeport LNG, Mozambique LNG 물량만 각각 4.4MTPA, 3MTPA에 달한다고 밝힘. (TradeWinds)

Seadrill gets another nine days to pay interest on loans

악화된 offshore 시장에서 Seadrill이 채무조정을 위해 일부 채권자와 협상을 진행했다고 알려짐. 은행 대출과 채권을 통해 조달했던 일부 차입금에 대하여 forbearance agreement 체결에 성공했다고 보도됨. 그러나 유예기간이 9월 29일까지이고 3기의 jack-up rig에 대한 임대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유조선 시장 2022년부터 초강세

2022년부터 유조선 시장이 강세 기조를 달릴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이유는 극히 줄어든 수주잔고 때문이라고 보도됨. VLCC 수주잔고는 현 서비스 선대의 7% 수준으로 1990년 중반 이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해체되어야 할 유조선도 많은 상태이며 VLCC와 수에즈막스 탱커의 약 30%가 선령 15년 이상인 선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중공업, 설계 단계에서 탄소발자국 예측

현대중공업이 미국 선급 ABS와 공동으로 선박 설계 단계에서부터 탄소발자국을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구축했다고 보도됨. 탄소발자국 시뮬레이션 구축은 조선 해운업계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려는 선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됨. Clarkson에 따르면, IMO2050을 달성하려면 선속은 현재 평균보다 8% 줄이고 전체 선단의 45% 이상을 LNG추진선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두산, 두산퓨얼셀 지분 16.78% 전량을 두산중공업에 현물출자 추진

두산이 두산퓨얼셀 보유지분 전부를 자회사 두산중공업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길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두산은 보유하고 있던 두산퓨얼셀 지분 16.78% 전량을 두산중공업에 넘기고 그에 상응하는 두산중공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됨. 두산그룹 오너일가는 앞서 4일에도 두산퓨얼셀 지분 23%를 두산중공업에 무상증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비즈니스포스트)